

# 파란만장하기 그지없는 위대한 지휘자의 인생을 그린 《푸르트벵글러》 푸르트벵글러의 음악은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

클래식 음악 팬이라면 대부분 소장하고 있을 음반. 또 무인도에 들고 갈 단 한 장의 음반을 꼽아달라고 할 때 언제나 상위권에 자리잡는 음반. 푸르트벵글러가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의 바이로이트 실황. 나는 이 음반을 여섯 가지 CD 버전으로 섭렵해 보았다. 오아시스에서 나온 라이센스 LP를 시작으로 본사에서 CD로 복각한 레페랑스 시리즈를 통해 디지털 매체로 갈아탄 뒤로는 악명 높은 도시바 EMI 2088 시리즈, EMI가 창사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시리즈에서 단발성이었던 이 기획을 상설화한 Great Performance of The Century 버전으로 개비(改備)에 개비를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줄여서 GROCC로 불리는 이 시리즈에 적용된 ART(Abbey Road Technology)를 적용한 푸르트벵글러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으로 이 음원을 감상하고 있다.

글\_최윤구

## EMI 100주년 기념 버전 푸르트벵글러의 <합창>

도시바 EMI 2088 시리즈에서 백주년 기념 음반으로 갈아탈 때의 일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온라인 문화는 PC통신 쪽이 주류였고, 특히 동호회 활동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나서도 제법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됐다. 지금은 이렇게 개비할 음반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선물로 주곤 하지만, 그때 도시바 음반을 중고로 처분하기 위해 동호회 중고 장터에 매물로 올려 놓았다. 글을 올린 지 얼마 안돼 연락이 왔고, 직거래를 하기로 한 나는 약속장소인, 지금은 없어진 대학로의 바로크 레코드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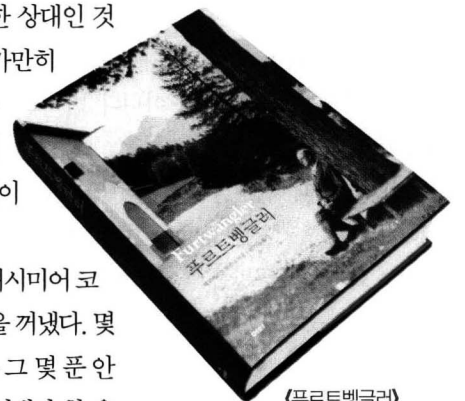
그때나 지금이나 거리 풍경은 우리에게 데자뷰(déjà vu)를 강요한다. 개성이 강하거나 역사가 오래 됐거나 조금이라도 유행과 맞서려 들거나 하는 건축물은 이 나라의 웅만한 변화가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생김새 김이 다르다고 해도 그 이유란 기껏해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돈 벌이가 다른 데보다 좀 낫다거나 하는 시덥잖은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단 하나 밖에 없던 이 유서 깊은 자리에는 지금은 어디

에서나 볼 수 있는 음식점 체인이 들어서 있다.

음반이라는 매개를 빼놓고 나면 서로를 이어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타인을 만나는 자리로 바로크 레코드 간판 밑처럼 완벽한 곳은 없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나는 바로크 레코드의 간판 밑에서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다. 내 또래로 보이는 그는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시침이 아닌 분침을 보면서 걸음을 옮길 것 같은 인상을 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약속한 상대인 것을 확인하는 몸짓을 해보인 다음 상체를 가만히 숙이며 약속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예의바름과 자신에 대한 존중의 딱 중간에 있는 듯한, 그가 숙인 상체의 각도와 그것이 상징하는 그의 균형감각에 감탄했다.

그는 무릎 조금 위까지 내려온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안에 손을 넣어 내게 음반 값으로 줄 돈을 꺼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건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 담긴 새하얀 봉투였다. 그에게 건네야 할 음반에 아무런 포장도 하지 않고 들고 온 나는 당황했다.



《푸르트벵글러》  
헤르베르트 하프너 지음 | 이기숙 옮김 |  
마티 | 757쪽 | 값 36,000원

## 결국 그는 음악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

어쨌든 푸르트벵글러의 〈합창〉을 포함해 몇 장의 음반을 처분하고 난 돈으로 EMI 100주년 기념 버전 푸르트벵글러의 〈합창〉을 손에 넣은 나는 항상된 음질을 확인하고 만족해 했다.

그런데 음반을 판매한 지 며칠이 지나서 음반을 사갔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에는 사무적인 딱딱함과 구면인 사람을 대하는 친근함이 이상적인 배율로 섞여 있어서 나는 다시 한 번 그의 균형감각에 감탄했지만, 그 음성이 전하는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구입했던 음반 중 한 장을 환불해 주실 수 없겠느냐고 묻고 있었다.

“환불이요?” “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어떤 음반을?” “〈베토벤 교향곡〉 음반이요.”

혼란스러워진 나는 환불 사유를 물었다. 지금 생각하건대 반품에 대해 불멘소리를 하는 판매자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아끼던 외동딸을 소박 놓겠다는 사내의 통보에 당혹스러워하는 친정 아버지의 목소리로. 그 역시 내가 새로 구입한 100주년 기념 음반으로 개비하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맹세컨대 그 음반의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나로서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는 자신이 쓰고 있는 스피커의 이름을 뱉었다.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의 정점에 위치하며, 지금도 개량판이 나오고 있는 스피커였다. 적당한 물건이 없어서 임시로 물렸다는 앰프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꽤 무리를 해야 들여놓을 수 있는 가격대의 인티앰프였다. 그가 CDP의 이름을 마저 대기 전에 나는 재빨리 원하시는 대로 환불해 드리겠노라고 대답했다. 아마 내 목소리가 그에게는 다소 신경질적으로 들렸는지도 모르겠다. 그 이유를 그는 아마 그때도 지금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바로크 레코드 앞에서 만난 예의 그 균형감각을 자랑하는 몸놀림을 구사했지만 나는 더 이상 감탄하지 않았다. 내가 저녁식사를 못했다는 말을 듣자 그는 나를 근처 분식점으로 이끌고 가서 김밥이랑 이것저것을 사주면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오디오를 취미로 한 지는 좀 되었는데 너무나 거기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음악을 좀 들어보려고 주변에 물어보니 이른바 명반 리스트라는 것을 뽑아 주길래 그것만 믿고 내게서 음반을 샀는데 듣고 보니 음질이 너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푸르트벵글러의 음반이 자신의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들려준 엄청난 히스노이즈와 상하좌우로 흔들리는 음상, 연주자들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짐작도 되지 않는 정위감,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금관으로 대표되는 황당한 음장, 현의 질감과 금관의 빛남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해상력에 관해 길게 얘기했다. 라면 가닥을 후루룩 빨아들이면서 그 얘기를 들던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결국 그는 음악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

“음악에 꽤 조예가 깊으신 것 같으니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한 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에게 나는 밥을 사줘 배를 채워준 사람에게 보내는 미소를 지어보인 뒤 헤어졌다.

## 푸르트벵글러가 지휘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들으면

### 언제나 눈물을 흘린다

물론 그 뒤로 그에게 메일이든 전화든 연락을 취한 적은 없었다. 오해 없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를 몰신주의를 신봉하는 속물이라고 깔볼 생각이 없다. 다만 안스러울 뿐이다. 열악한 음질 때문에 푸르트벵글러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음악이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복과 감동의, 한 10% 정도는 포기하는 행위라고 믿기에 이렇게 푸르트벵글러의 음악은 내게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객관성은 비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늘 곁에 두어야 하는 덕목이지만 푸르트벵글러 앞에서 나는 늘 객관성을 분실하고는, 그가 지휘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들으면 언제나 눈물을 흘리곤 했다. 변명컨대 이 글의 형식이 리뷰도 칼럼도 아닌 에세이가 되어 버린 것은 그래서이다. 사람을 푸르트벵글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51년 버전의 〈합창〉을 듣고 감동을 하는 사람과 데면데면한 사람으로 나누는 이유 같은 걸 ‘객관적’으로 쓰기란 불가능했다.

서양의 근대가 도달한 가장 높은 정신의 상태를 소리로 표현한 베토벤의 스코어의 가장 완벽한 구현자라고 평가받았던 사람. ‘나치 치하의 독일만큼 베토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 있는냐’면서 예술이 정치를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전쟁 후에 전범 재판을 받으면서 클래식 음악에 관해서 아는 게 아무 것도 없는 미군으로부터 ‘밴드 마스터 푸르트벵글러’라는 모욕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

첼리스트 자클린느 뒤 프레와 레니 슈펜슈탈의 전기를 낸 바 있는 도서출판 마티의 〈푸르트벵글러〉는 이렇게 삶의 한 꼭지만 따와도 파란만장하기 그지없는 위대한 지휘자의 인생 전체를 다룬 국내 최초의 전기다.

하숙집 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가 있었다는,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을 연상시키는 젊은 시절과 전범 재판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무죄’가 아닌 ‘단순가담’이었다는 기술은 나처럼 푸르트벵글러를 믿음의 대상으로 섬겼던 이들에게 실망 정도가 아닌 충격을 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믿음은 약해지기는커녕 강해졌다. 푸르트벵글러는 “그는 나치예술계의 총아이자 나치당원이었던 전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전후에도 곧바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로 그 삶을 요약할 수도 있는 카라얀과는(북폴리오의 〈20세기 포토 다크 세계사 4 독일〉의 258쪽을 보라) 분명히 다른 인물이었음을 헤르베르트 하프너의 전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윤구 님은 〈월간 코드〉 〈조이클래식〉 〈월간 오디오〉 〈What hi-fi〉 등에 음반평론을 기고하고 있으며, 국민대에 출강하고 있다.